재판 결과에 희비 교차 … 출렁이는 지방선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재선 행보에 탄력

홍이식 화순군수 1심 징역 3년 … 민주·安신당, 집안대결 구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홍이식 화순군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전남도교육감 선거와 화순군수 선거가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재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홍 군수는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남도교육감**=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벗겨지면서 재선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교육감은 2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만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로 장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무담임권 제약도 없어 6·4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출마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그동안의 법적 부담을 털어냈다는 점도 선거를 앞둔 장 교육감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명확하지 않지만 지방선거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6·4지방선거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이 재판과정에서 간접적인 판단요인으로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

장 교육감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김경택 예비후보와 김승희 전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경택 예비후보는 "장 교육감의 거취와는 상관없다.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승희 전 교육국장도 "장 교육감의 재판 결과를 쟀다면 지난달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며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수**=홍이식 화순군수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화순군수 선거가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이날 군수 선거를 전후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홍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군수는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홍 군수는 2011년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관급자재 납품업자 2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 군수가 이날 실형을 받음으로써 호남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실형 선고로 민주당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홍 군수가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되며, 차기 군수직을 노리는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10여년간 형제 군수(전형준-전완준), 부부 군수(임호경-이영남)가 진퇴를 거듭하면서 벌인 '집안 대결'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이식 군수의 재판결과에 따라 그동안 '安 신당' 후보로의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전형준 전 군수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민주당에 입당한 임호경 전 군수와 본선에서 또 한차례의 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임 전 군수를 비롯해 구충곤 전남도립대 총장, 배동기 전 화순 부군수가 공천을 노리며 지역을 누비고 있고, 신당 측에서는 전 전 군수를 비롯한 구복규 전남도의원, 류복열 전 나주경찰서장 등의 경합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출마선언

"전남의 미래 바꾸고 개척"

5대 부흥 플랜 제시

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이 12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과 중앙행정, 국회의원 등 행정과 정치를 아우르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남의 미래를 바꾸고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 내 일부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선 참여 후보간 인위적인 합종연횡은 없으며 끝까지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은 재정자립도,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수 전국 최하위에다 인구 감소, 고령화, 인재유출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보수정권과 산업화 세력의 호남 소외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또 "위기의 전남을 구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며 도민과 소통하는 열정의 도지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심장부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전남부흥 플랜을 제시했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와 산업현장, 농어촌에서 전남발전을 견인할 '10만 인재 키우기 김대중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정 농수산업의 강점을 살린 농수축산 생명벨트산업 육성, 전남의 역사, 문화예술, 관광, 휴양 등을 아우르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호남~제주 간해저터널 사업 추진 등을 공약했다.

최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일부 후보의 의원직 사퇴 발언과 관련해 그는 "국회의원직 사퇴에 대해 도지사 경선도, 국회의원직도 열심히 수행하라는 것이 지역구 주민의 뜻"이라며 "사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완도 출신으로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완도군수, 목포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1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오리가 AI 의심 없이 헤엄칠 날은 언제

김은영의 '그림 생각'

(62) 오리

요즘은 '너무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 책의 홍수시대라 할 만하다. 나의 경우엔 '세계 명작 동화'나 '셜록 홈즈 시리즈' 등 전집 서너 질로 유년을 보냈던 것 같다. 책이 귀했기에 본의 아니게 다독이 아니라 읽었던 책들을 읽고 또 읽었었다.

독일 동화인 그림 형제의 '한스와 그레텔'은 지금까지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어린 마음에 길을 잃어버릴까하는 두려움으로 한동안 자갈을 보면 반사적으로 주워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싶었던 생각이 겹쳐진다. 가장 압권은 한스와 그레텔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리를 타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다. 지금도 시골 저수지나 시냇가에서 떼 지어 헤엄치고 있는 오리를 보면 그렇게 예쁘고 반가울 수가 없다. 오리가 있는 풍경이 내겐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연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리, 철새 공포가 안타깝다.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범이 되어 살처분 당하고 있는 닭, 오리의 비명이 귓전에 들리는 듯하다. AI의 발생이 어찌 오리 탓이기만 할 것인가?

홍세섭 '유압도(遊鴨圖)'

조선시대 선비화가였던 석창 홍세섭(1832~1884)의 '유압도(遊鴨圖)'를 보면 아픈 마음이 잠시 달래진다. 헤엄치는 두 마리의 오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俯瞰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시각이 유쾌하다. 활기에 넘치는 오리들의 표정, 얼마만큼 따라왔는지 뒤돌아보며 확인해보는 앞 오리의 동그란 눈동자, 힘차게 따라잡으려는 뒷 오리의 유영으로 일렁이는 물결은 그 얼마나 역동적인가?

홍세섭은 사대부이면서도 자연과 생명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진지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화면의 생생함과 구성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조선 말기 회화사에서 홍세섭은 북산 김수철 등과 함께 전에 보지 못한 참신한 화풍을 창출했다하여 주목할 만한 '이색화풍'으로 평가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중진 차출론' 박지원, 김영록 회견장 참석 눈길

金 "朴 출마할 경우 존중"

12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안철수 신당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중진 차출론'이 제기되면서 전남지사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어 참석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윤석 의원 등과 함께 입장한 박 전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국회에서 형제의 연을 맺은 '독수리 4형제'의 맏형으로서, 국회가 대정부질문으로 바쁜 와중에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독수리 4형제'는 목포를 지역구로 한 박 전 대표를 비롯, 김영록(해남·진도·완도), 황주홍(강진·영암), 이윤석(무안·신안) 의원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4개 선거구 현역 의원들의 친목모임의 애칭으로, 이날 행사에는 황 의원을 뺀 3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의 도지사 출마 여부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박 전 대표가 행사장에 등장하자 "김영록 의원과 박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연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 의원은 출마 회견 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현재 경선 구도가 동서로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전 원내대표가 출마할 경우 뜻은 존중하겠지만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자유투어는 70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유투어
No.1 종합여행그룹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무안출발 장가계직항 (3/28~5/30까지 적용)
(무안출발 16시10분)-(무안도착 14시 50분) / 금요일 출발 3박 4일 /월요일 출발 4박 5일
[실속] 장가계 3박 4일 959,000원~
[품격] 장가계 3박 4일 1,059,000원~
[실속] 장가계 4박 5일 989,000원~
[품격] 장가계 4박 5일 1,089,000원~

제주 (OZ,KE) 호남지역출발 [1월~3월까지 적용]
선박패키지 149,000원~
항공+선박패키지 190,000원~
항공패키지 259,000원~

♥특별상품♥ 유류세포함 [2014.3.1~6.30 적용]
[품격] 푸켓 5일 (전통안마,팡아만씨카누,코끼리트래킹/3대특식포함) 799,000원
[품격] 푸켓 6일 (전통안마,팡아만씨카누,코끼리트래킹/3대특식포함) 949,000부터
[품격] 베트남 캄보디아 6일 -3월출발- 949,000원
[품격] 베트남 캄보디아 6일 -4월출발- 929,000원

♥허니문 기획상품♥ 경품증정 [2014.3.1~6.30 적용]
푸켓 (품격) 더비짓프라임풀빌라 1,630,000원~
(고품격) 마이카오드림투베드풀빌라 1,840,000원~
보라카이 (특가) 크라운리젠시디럭스 1,180,000원~
(품격) 리젠시프리미어 1,320,000원~
세부 (정통) 크림슨디럭스 1,310,000원~
(품격) 임페리얼오션디럭스 1,340,000원~
(고품격) 임페리얼오션원베드스윗 1,480,000원~

동남아 [선착순 특가 적용]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센레스토랑 포함 5일 499,000원~
[앙코르왓] 힐링 IN 캄보디아 5일 649,000원~
[싱가폴] 싱가폴/조호바루/바탐 5일 829,000원~

자유투어 ONLY
창사 20주년 상품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선착순 특가 적용]
특급3박/샤프란볼루/돌마바흐체 터키 9일 1,390,000원~
고객만족1위/고객 송출1위 동유럽 6국 9일 1,590,000원~
발칸+크로아티아일주 5국 9일 1,890,000원~

중국 [홈쇼핑 大 HIT상품]
북경 쉐라톤호텔+VIP리무진 4일 369,000원~
성도/구채구/모니구+(낙산대불) 5일/6일 399,000원~
메리어트호텔 3박+풀옵션 상해 4일 399,000원~

일본 [방학특선 & 홈쇼핑 HIT]
[홈쇼핑HIT] 선상크루즈 미야자키+벳부 5일 279,000원~
[일본3대야경] 후쿠오카 아소 나가사키온천 3/4일 299,000원~
[NO옵션] 오사카/나라/교토 온천 ♨ 3일 399,000원~

남태평양/미주 [특가로 즐기는 성수기]
호주 시드니 특급저비스베이+스노쿨링 6일 1,190,000원~
[실속 5 Star 항공]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10일 2,190,000원~
미서부+3대캐년+후버댐 8일 1,590,000원~

예/약/상/담 상무점 062)652-2974 전주점 063)284-6868 광양점 061)792-7222 나주점 061)332-7400 광천점 062)512-1713 충장점 062)251-6166